

둘이 여행을 떠나면 왜 꼭 싸우고 돌아올까?

여행의 심리학

김명철 지음



한 심리학자가 29살에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 첫 여행을 떠났다. 그는 '그냥 배낭여행'이 아니고 '씩씩하고 씩씩한 배낭여행'의 낭만을 생각했다. 캄보디아의 땀별 아래에서 자전거를 타고 앙코르와트 인근 유적지를 찾아 40km를 누볐다. 그날 저녁 온몸에 멘소래담 로션을 바르고 발가락 곳곳에 반창고를 붙이며 자신의 여행에 '회의'를 느꼈다. 그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하기 위해 무엇을 따져보고,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여행과 여행자에 대해 고민했다. 이후 그는 시간과 돈이 허락하는 한 1년5개월 동안 12개국을 여행했다.



여행은 이국 사람들의 '다른' 삶과 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강에서 매일 저녁 열리는 불의 의식인 '강가 아르티'(Ganga Aarti).

'여행하는 심리학자' 김명철씨가 펴낸 '여행의 심리학'은 '나 스스로가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물'이 모든 사람의 행복한 여행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우선 독자들에게 '나는 왜 여행을 떠날까?' 하는 화두를 던진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이소 아홀러는 이에 대해 "여행은 무엇인가를 피하려는 회피활동인 동시에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접근 활동"이라고 말했다. 외·내향성,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 신경증 등 책에 실린 '성격 5 요인'을 통해 자신이 '집중 같은 여행자'인지, '수도승 같은 여행자'인지 테스트할 수 있다.

여행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이다. 여행의 즐거움이란 중국 쓰촨성 쑹판의 2박3일 말 트레킹 같은 '짜릿함'을 만끽하거나 내달 카트만두 구시가지 거리에서 느끼는 '다름',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데 있다. 여행을 망치는 주범은 분노와 공포, 혐오이다. 또한 여행을 하며 겪는 날씨와 음식, 풍경, 숙소, 여행길 친구는 만능스러운 여행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5대 요소이다. 특히 취향이 다른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 싸우고 돌아오기 십상이다. 저자는 행복한 부부간 관계를 비유하며 "항상 서로 소통하고 문제를 직시하며, 배려하는 여행을 하고, 갈등이 있었다면 손을 내밀고,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수용하고, 여행을 통해 행복한 경험을 공유하며 강한 동료의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저자는 행복한 여행자가 되기 위한 '윤리적 여행'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환경보호), 현지문화와 공동체를 존중하며(문화존중), 여행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경제로운 경제적 기여) 여행을 의미한다. 이 책은 서점 서가에 뽀뽀이 꽂혀있는 여행 에세이와 차원을 달리한다. 여행전과 여행중, 그리고 여행후에 지켜야 할 '3-2-1 법칙'에서 저자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행전에 필요한 3가지는 '여행방법 선택'과 '정보습득', 여행자들의 공용어인 '영어'이다. 또 여행중에 활용할 2가지는 '마음을 챙기며 여행하기'와 '부정 정서에 휩쓸리지 않기'이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여행의 행복을 잘 정리하고, 이를 가끔 꺼내 생생하게 추억하는 것'이다. 저자는 '지구별' 각 나라를 방문할 때 "좋은 여행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여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줄 수 있는 '여행철학'을 제시한다. 책을 덮을 때면 훌쩍 짐을 꾸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서평> (여크로스·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가족 연습=93가지 상담 사례를 통해 연습해보는 우리 가족 행복 프로젝트. 상담학 박사로 20여 년 동안 부부와 가족을 치료 상담해온 저자가 신문에 2년간 연재한 '상담학 박사 김미애 교수의 부부·가족 상담 이야기' 93편을 묶은 책이다. 개인상담은 물론, 부부·가족상담을 배우는 전공자들과 초보 상담자들에게 유용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불멸의 원자=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웹진 '크로스로드'에 '페르미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들을 엮은 책. 저자는 과거와 현재의 물리학자들을 불러 모아 물리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탐색한다. 1부에서는 입자물리학 이론의 기초 개념들을 예제이 식으로 소개하고, 2부에서는 천체 물리학자들의 흥미로운 일화와 그들의 과학적 사고법이 소개됐다. 3부는 입자물리학 실험의 역사를, 4부는 물리학자들의 자연관, 과학관을 엿볼 수 있다. <사이언스북스·1만8500원>

▲사진이론=1996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최근 다섯 번째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사진이론 입문서로 정평이 난 'Phot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번역본.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비판적으로 사진에 대해 논하는 이 책은 그 자체로 독보적이며 겸손한 사진이론 입문서다. 기본적으로 사진 '찍기'보다 사진 이미지 '읽기'에 관한 책으로 사진 해석을 둘러싼 역사적, 핵심적 논쟁들을 다루고 있다. <두성북스·3만8000원>

▲중앙은행 별곡=대한민국의 금융 발전



전 과정을 다룬 경제 교양서. 저자가 2014년 9월부터 주간지에 연재한 글을 바탕으로, 여기에 각종 사진 자료와 도표, 금융사 연표, 찾아보기를 확충해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발달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설·시·연극·영화 분야의 고전을 이야기 중에 능란하게 동원했으며, 이런 장치는 경제적인 시점만을 동원한 금융사를 넘어 금융사 또한 세계 역사의 큰 일부라는 점을 독자에게 일깨워준다. <인물과 사상사·1만6000원>

▲시 읽기의 즐거움=24년간 새로운 시와 시인의 발굴에 힘쓴 이시영 시인의 시 산문집. 1996년 무렵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긴 시차를 두고 쓰인 글들을 묶어낸 '시 읽기의 즐거움 - 나의 한국 현대 시 읽기'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선·후배 시인들의 시를 읽고 베푼 시인이 진솔하고 다정하게 써내려간 시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록이다. <창비·1만3000원>

어린이 책

▲따까리, 전학생, 쭈쭈바, 로댕, 신가리=보통의 고등학생, 권력에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권력자들이 학생회장 단 선거에 출마하며 존재의 반란을 일으키고, 피제이라는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이야기가 웃음과 감동으로 펼쳐진다.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사유와 성찰이 등장인물의 용기, 참여의 의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주자음과모음·1만2000원>

▲손손손 손을 씻어요=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려 다 그만 김밥을 쏟고 만다. 엄마는 손을 씻지 않아 병에 걸리게 된 은서가 이야기를 통해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들려주고 은서의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손에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는지 현미경을 통해 보여준다. <꿈터·1만1000원>

▲소년, 떠나다=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떠나는 난민들의 이야기이자, 상처와 상실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용기 내어



한 발짝 나아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아름다운 시처럼 풀어낸 이야기와, 바다와 하늘을 부드러운 색깔로 표현한 그림이 만나 힘 있는 감동을 전해 준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슈퍼 영웅 암탕 도난 사건=슈퍼 영웅 변신 페인트의 세 영웅이 돌아왔다. 낡은 빵 공장 건물에 이사 온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틀레가 어느 날 일을 저지르고 만다. 걸잡을 수 없이 꼬여만 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아틀레는 슈퍼 영웅 스바블레가 되기로 결심하고, 동료인 브루네와 블로세의 도움을 받는다. <스콜라·9800원>

술집에서 만난 4명의 남자가 벌이는 '진실 게임'

중국어 톨렛

은희경 지음



은희경이 새로운 소설집 '중국어 톨렛'을 펴냈다. 소설집에 실린 6편의 단편 소설은 술, 옷, 수첩, 신발, 가방, 사진, 책, 음악 등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모티브로 삼았다. 파스빈더의 영화에서 제목을 따온 표제작 '중국어 톨렛'은 몰트위스키를 파

있는 듯한 중년 남자. 아내와 막 해어진 화자는 자신의 불행한 한탄하고, 가장

큰 실수담을 이야기하며 진실과 거짓말을 쏟아낸다. 화자가 손님이 놓고 간 수첩을 줍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미의 왕자'는 멋진 수트를 입은 남자를 동경하는 초라한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남성 패션잡지 'GQ' 의뢰를 받아 '수트'를 소재로 쓴 작품으로 수첩과 수트, 가방의 이미지를 통해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발을 소재로 쓴 '대용품'은 뛰어난 두뇌를 가진데다 성공도 좋은 한 소년과 그렇지 않은 평범하고 소심한 소년이 단짝으로 지내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이 엇갈리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저자는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당시의 감정이 작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불연속선'은 자살을 시도한 여자가 직전에 비행기에 실었던 짐가방이 한 사진작가의 것과 뒤바뀌는 바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창비·1만9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구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술향기맡은터.com

www.naver.com 술향기맡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술향기맡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아니고 혁신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임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한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술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